

# 상담으로서의 설교

김성원

## 1. 서론

### 1. 연구의 동기

목회 훈련생으로서 훈련받고 학습하는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목회의 현장인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공식처럼 간단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식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설교학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설교야말로 목회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라는 확신에 빠져보게 된다. 그러나 이 신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목회라는 영역이 오직 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학의 꽃은 설교'라는 말에 전심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설교행위 이상의 것이 현장에서 요구된다.

오늘날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대부분은 강해설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이것은 본문의 철저한 연구에서 시작해서 청중과 상황으로 확대해 가는 식의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해설교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현존하는 지 모른다. 사실 강해설교를 정의하라면 설교자에 따라 다양각색일 것이 다.

요즘은 설교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다. 사실 원리에는 충실하지만 전혀 실효성이나 변화의 위력이 없는 설교를 심심치않게 듣게 된다. 설교학적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삶이나 현장에 대한 공허한 태두리만 두르므로 더욱 의기소침하게 한다. 설교와 현실적 실존의 기반인 가정, 직장생활, 친구관계, 계약관계 등의 외부적 요소간에도 긴장이 존재할뿐더러 이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성적인 문제들, 내면적인 아픔들에 대해 설교가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분노, 슬픔,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불안, 좌절, 갈등 등의 인간 실존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증상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병리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모양들이 적지 않다. 요즘은 아예 '사회병리', '집단질환' 등의 비 개별적 용어들 마저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낫설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물론 실제로 가볍지는 않다. 사회가 점점 비도덕적으로 악화되고 있기에 개인적인 것은 사소하게 느껴질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로는 정신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갈등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실제로는 심각한데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심방을 가보면 이런 유의 경험은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누군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사의 제일 효과적인 치료책은 설교이다. 물론 이 말은 설교가 목사 자신의 도구라는 말은 아니다.<sup>2)</sup>

성도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면적 요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할애한 것을 '상담설교'라는 이름으로 듣게 되었다. 물론 '목회대화의 기초'<sup>3)</sup>라는 과목의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다. 설교에 본격적 치유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요구되던 사항이었다. 비록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주해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청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설교를 듣는 성도를 변화가 필요한 실존으로<sup>4)</sup> 보지 못하고 관객으로 전락시킨 데서 오는 것이다. 설교자 자신의 현학적 과시나 권위적인 요구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부닥치는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

2) 오히려 목사가 설교의 도구다.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계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 설교의 주체는 사람(설교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살전 2:13). 유헤무, 개혁신학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 505.

3) 고신대학원 2학년 1학기 과목

4) 실존이라는 용어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다른 표현을 찾으려 해도 이것 이상은 없는 듯하다. 이 논문에서 실존 특히 설교를 듣는 성도를 '구체적 실존'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Da sein(There is...)'의 개념이다. 설교를 듣는 성도는 환경과 분리된 천상의 존재가 아니다.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환경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1) 티모시 켈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 나침반 출판사), p.15. 설교를 대상에 대한 인식의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규범적 관점, 상황적 관점, 실존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외주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의 전인(全人)에 대하여 사역해야 한다. 설교 가르침, 심방, 전도, 봉사, 헌금 등의 요소는 설교자 중심의 지침들이면서 외적인 지침들이다. 그러나 아픔, 상처, 분노, 좌절, 수치, 죄책감 등의 요소는 설교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내면의 실제적 지침이다.

설교자는 성경이 이 여러 가지 실존의 영역들이 가지는 안정에 대한 욕구<sup>5)</sup>를 충족시켜 주도록 설교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상담설교'이다.

상담설교는 상담의 효과를 설교를 통해 거두려는 일종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설교가 상담에 권위를 부여하고<sup>6)</sup> 상담이 설교적 현장에<sup>7)</sup> 들어오는 것이다. 이 양자는 연관성 속에서 발전한다. 따라서 상담설교의 정확한 이해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담과 설교라는 두 전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범위는 목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면적 갈등과 영적, 정신적 부적응의 치료에 대한 치유적 개념으로서의 상담설교를 소개하고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상담설교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창세기의 범죄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개관해 볼 것이다. 한편 설교자라는 자의식을 기초로 상담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정체성을 살펴본 후에 상담설교의 기능과 실제적인 준비에 관해서 접근해 보겠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앞부분에 나오는 상담설교의 개념이나 필요성 그리고 상담설교자에 대한 정의 등은 기존의 설교학 및 상담학에 대한 자료와 개념을 설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려 한다. 또한 상담설교의 실제적인 준비 및 적용 등은 아직은 드물지만 상담설교를 시도하고 있는 이들의 글을 뼈대로 참고하고자 했고 본인의 교회에서 시도한 상담설교의 과정과 효과 등을 적지 않게 염두 했다. 이로서

- 5) 로렌스 크렘, 『결혼건축가』,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p. 26. 이 책에서는 인간이 관계의 친밀감을 필요로 하고 이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는 과정을 안전감과 중요감으로 본다. 그러나 안전감은 관계의 측면과 함께 실존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서도 요구된다.
- 6) 그러나 상담은 결코 권위적이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상담자의 전달의 권위가 아니라 수용자 측면의 권위 있는 이해를 말한다. 어투나 외양, 자세 등에서 느껴지는 고압적인 무게가 아니다.
- 7) 설교는 설교자가 전체 성도를 상대로 한다. 따라서 소수 혹은 개인을 향한 집중적인 상담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Case보다는 개별성을 자아내는 내면의 상황을 다룬다.

다가오는 목회환경에서 상담설교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내면적인 요구들과 합치하는 것임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 II. 본 론

### 1. 목회상담과 설교

#### 1) 목회상담과 상담자

일반적으로 상담은 내담자 자신이 해결하려는 당면문제에 대해 한계나 도움을 필요로 하여 도움을 줄 상담자를 찾아옴으로 시작된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일반 상담이나 목회상담이 큰 차이가 없다.<sup>8)</sup> 그러나 상담의 목표에 있어서 일반상담은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목회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궁극적 과제이다. 사실 목회 상담은 긴장의 원인을 신앙적인 영역에서 해석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나 태도가 일반상담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또한 목회상담의 경우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둔다.

#### 2) 설교와 설교자

개혁과 전통에서 설교는 목회의 가장 큰 영역이다. 과거 종교개혁 당시부터 설교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sup>9)</sup>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사역 역시 말씀 선포였다.<sup>10)</sup>(마가복음에서만 해도 1:14 :1:21-28 :4:1-34 :11:15-19...) 목사의 기본 3 역 즉 설교, 교육, 봉사(심방) 중 설교가 근본을 이룬다.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이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방편이다. 따라

- 8) 그러나 목회상담의 경우 목사의 심방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성도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듣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경우 역시 일선의 목회 현장에서는 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상담은 단순하게 대화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목사는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 권면하려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상담설교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9) 유헤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 505.
- 10) 복음서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활동사건은 설교가 혹은 교사의 모습이다. 예수의 말씀 사역은 설교와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장상, '예수의 설교', 제 6 회 연세대 신학대학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1986.

서 설교자는 특수한 존재라기보다 특수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설교자의 선택에서 장립, 사역은 1차적으로 하나님 편의 일이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 설교는 철저하게 사역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sup>11)</sup> 인간의 특별한 Identity를 강화시켜 주는 악세사리가 아니다. 설교의 능력은 지혜의 권함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되어 교중에 믿음을 일으킨다(고전2:14).

### 3) 상담가로서의 설교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사는 오직 설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의 임무는 설교행위를 넘어서 선포된 진리(설교)가 실제로 주님의 양 무리들의 생활 속에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쉽 없이 살펴야 한다. 또한 진리 가운데 생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사의 상담은 주로 심방을 통해서 이뤄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를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심방을 청하게 되고 심방 예배와 아울러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심방은 교회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

심방에서는 상담과 설교의 영역이 연합된다. 목사의 심방 대상이 주로 병자, 과부, 독신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 시간의 멧세지는 이런 환경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 목사는 상담설교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설교는 이런 특수한 경우의 부분적인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도 전체의 보편적 필요와 한계 등에 더욱 접근하여 공식 예배시간에 온 회중을 향하여 선포되는 설교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러므로 좀 더 확대된 차원의 상담설교에 관한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상담설교라는 용어가 주는 약간의 거리낌은 우선 설교사역의 이해를 선지자적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직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과 설교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놓을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양자가 성도의 영적이며 육적인 성장과 안위

11) 그러나 여전히 설교자의 영광은 쇠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맡기신 특별한 부르심에서 빛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존 스타트는 설교자를 '청지기'라는 용어로 변별시켜 놓았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탁하시고 지금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맡은 청지기이다." 존 스타트, 『설교자 상』,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p. 17.

라는 한 목적을 지향하며 한 인격에 의해 수행되는 한 직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상담설교

처음 강의실에서 '상담설교'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명확한 개념을 순간적으로 잡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상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은화한 이미지 때문이다. 이 상담설교는 미국에서는 '삶의 정황 설교(Life-situation Preaching)'라는 용어로 이미 오래 전에 개념화되었다고 한다.<sup>12)</sup>

이 용어가 처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계기는 1991년의 목회신학연구회 제15차 세미나에서 '상담설교 연구'라는 주제강의 예시였다.<sup>13)</sup> 그 후 1993년 '목회와 신학' 4월호에 "전인치유에 있어서 목회상담의 역할"이란 글이 소개되면서 대중화되게 된다. 이듬해 11월에는 '그말씀'지는 "상담설교론"을 특집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후에 상담설교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 1) 상담설교의 개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담설교는 설교를 통해 상담의 효과를 회중 전체에 주려는 의도로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말한다.

#### ① 상담설교는 설교다.

상담설교는 명백히 설교이다.<sup>14)</sup> 단순히 말씀을 빌어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담설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알'이다. '상담'이라는 접두어가 설교의 근본적 계시의 요소를 많이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목회상담'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듯이 상담설교의 목적도 단순한 문제해결이 아니다.

12) 송길원, 『침표가 있는 삶』, (도서출판 두란노, 1995), p. 7.

13) 김만풍 목사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1989년의 남서울교회 목회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1991년 "상담설교"라는 과목이 합동신학교의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 개설되었다.

14) 김만풍 목사는 상담설교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등에서 다른 설교들과 같다고 주장한다.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6), p. 19. 이런 주장은 최근의 것임에 틀림없다. 약 10 여년 전만 해도 상담설교는 한국에서 개념조차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이다. 1986년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의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김중기 교수는 한국 교회의 설교를 주석, 교리, 예화, 증언 등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설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sup>15)</sup>

그렇지만 상담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음으로 비로소 알게되는(롬10:17 ; 갈 3:2-5)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고려한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표출되는 내면성에 시선을 둔다. 결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좌절과 절망, 무절제하여 방종으로 치달는 사람의 죄성에 치유의 손을 내밀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담설교 역시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체험을 유도하는 것 혹은 예전적인 설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 상담설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함이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상담설교의 효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설교의 영역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설교 역시 새로운 시도라는 현재까지의 희소성에 힘입어 필요 이상의 영역들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②상담설교는 상담을 목적으로 설교한다.

상담의 목적은 상담적 효과이다.<sup>16)</sup> 주로 상담적인 필요에 대한 부응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단순한 상담적 효과를 넘어선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게 하고 그에 대한 응답(應當)의 반응 즉 예배적인 삶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상담설교의 내용에는 상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회중 개개인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심, 염려, 불안, 실패, 좌절, 외로움, 우울, 문제, 갈등, 위기 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내담자가 되기 힘든 다수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겪게되는 상담이 필요한

환경적, 사회적 긴장에 대한 치유의 과정으로 상담설교는 행해지게 된다.

물론 상담설교가 독보적인 형태로 선포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본문이 원천이 되므로 다른 설교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설교와 변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설교는 의형상 대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상담이 진행되는 근간을 이루는 '대화'의 요소가<sup>7)</sup> 설교에 대폭적으로 수용되게 될 것이다. 설교자와의 평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설교자가 던져 주는 재료들에 의해 내면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설교는 어떤 경우보다 청중적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up>18)</sup>

설교자는 청중들의 내적 대화가 진리의 빛에 따라 진행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청중들의 속에서 단순한 응얼거림을 넘어서는 내면적 대화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2)상담설교의 필요성.

이미 상담설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담설교의 필요성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담설교 역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sup>19)</sup>

①현대화와 인간 실존의 해체 문제

기술발전의 진보와 현대화는 인간 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의 범주를 변화시켰다. 대가족 제도는

15) 최근 들어 Narrative Preaching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대두되고 있다.

16) 김만풍 목사는 상담설교의 목적을 상담에 치중하여 규정한다.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상담설교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회중의 상담적인 필요에 적용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정각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설교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설교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이다."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p. 19.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담적 효과만을 위해 설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희생할 수는 없다. 만약 상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 강단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상담설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17) Narrative 기법, 암시적 언어, 상징적 은유, 여파된 심리학적 기교 등이 있을 수 있다.

18) "강단에 춤추는 해골, 좌석에 늘어진 송장" 이 말은 청중분석이나 청중적응에 실패한 그러나 진리이기는 한 많은 설교들을 꼬집어서 위어스비가 한 말이다. 워렌 위어스비, 『상상이 담긴 설교』, (요단출판사, 1997), 제 6 장(p. 79). 그러나 이런 측면의 지나친 강조는 'eisgenesis'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다. 아무리 절박한 청중적응도 말씀의 계시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성도들의 환경과 현상이해 이전에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로부터 기인한 내적 확신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19) 총체적 치유 목회의 한 과정으로서 상담설교를 이해해야 한다. "총체적 치유목회는 기존의 목회개념을 포함한 전인적이며 전환경적인 총체적 치유(Total Healing)요 총체적 목양이다." 박형렬, '총체적 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상담과 선교』 제 10 호(1995. 겨울), p. 34. 이런 정의는 상담설교를 목회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기저가 된다.

점차로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더니 급기야는 '나 홀로 가족'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배출해 내고 있다.<sup>20)</sup> 도시에 점차로 생겨나는 '원 룸형 오피스텔'은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결과이다.

엘빈 토플러가 이미 오래 전에 예견한 '전자 사무실'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뿌리내리고 있다. 사무와 생활 공간이 점차로 통합되면서 성(性)의 전통적인 가치가 몰락되고 있다. 가정(Home)과 사랑이라는 지고의 보호막에서 성은 이탈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sup>21)</sup>

요즘 제작되는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사생아이거나 가족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가정의 붕괴는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 불안, 경제적 위기, 취업지옥 등의 고민스러운 현실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 현대에 속한 청중들을 짓누르고 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와 그 비율의 증가는 길을 가는 도중에도 불안을 느낄 만큼 현실적이다.

무엇이 현대인들을 이런 불안 요인으로 병들게 했는가? 현대인들의 상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선 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우상이 차지하며 끝없는 상처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현대의 도시화된 산업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물질, 권력, 명예가 자리잡고 있다. 위기를 맞아 병들어 있는 인간의 내면을 해부해보면 그 마음 한가운데서 상처를 일으키는 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교회의 강단에서는 적절한 위로와 치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20) 어릴 때부터 현대의 아이들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모유를 먹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맛별이는 가정에서 엄마가 지켜주던 '편안함'과 '따뜻함'을 앗아가 버렸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유아들은 자신을 '장난감 속에 버려진 존재'로 인식한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유아 정신병원이 성업중이라고 한다.

21) 대학생들의 자취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약동거'는 이미 오래 전의 신문기사나 르포에서 다뤄졌던 문제다.

22)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 말씀』, 94년 11월호.

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강단의 멧세지는 또 다른 위협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탈 교회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sup>23)</sup>

목사는 이런 청중들의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불안과 고통을 죄의 문제로만 획일화시키는 것은 이미 식상한 논리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외침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만 들린다. 성도들의 삶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촉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멧세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만스런 청중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소생시키는 것이 목회활동이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시19:7)에서 '소생케 하는 것'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련과 패배, 실패, 낙심이나 고통 후에 확신을 주고 변화를 야기하며 격려, 용기를 줌으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때 소생케 될 수 있다.<sup>24)</sup> 이 대안의 하나가 바로 강단에서 행해지는 상담설교라 할 것이다.

상담설교는 이 불안한 현대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불안의 해소, 고민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환경의 속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게 된다.

## ②교조주의(율법주의)와 신비주의(패배주의)의 극복

과거로부터 교회안에는 두 가지의 극단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 경향이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척도가 신앙의 성숙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신앙은 각자가 가진 규칙의 수와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다.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금지의 규정이나 더욱 까다로운 실천 덕목들이 신앙의 잣대가 된다고 본다.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허례주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들에게

23) 한국교회의 노령화 문제도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다.

24) 에스겔 34:4-5, 21의 말씀은 이 치유의 사역이 목자의 근본에 속하는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 스렀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뜨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도다"

자유는 자기의 양심이 닿는 데까지 정한 법칙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열심이 신앙적인 감사의 토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세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평면적으로 신앙의 우열을 따지기 좋아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류의 열심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반응의 결과들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기 위해 가시적인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열심은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외적인 행동의 활성화를 통해 떨쳐 버리려는 시도이다. 친교의 기회를 넓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 문제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에 중독되고 프로그램에 빠지고 그러면서 상처는 더 깊어지고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적지않은 비극이다.

한편으로 교회의 다른 끝에서는 '신비주의'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신비주의는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체험주의, 반 교리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등의 은사를 절대시하고 황홀경이나 입신과 같은 체험을 강조한다. 특히 명확한 신앙고백적 기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 안의 말씀의 직분까지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려 한다.

아마도 이 신비주의에는 일종의 패배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태도가 신비적 성향을 좇는 원인이 된다. 인생에는 살아가는 동안 읊의 고난처럼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많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시도하려 하다보면 이 신비주의의 덫에 걸리게 된다. 어쨌든 이 신비주의자들은 눈에 본 것처럼 선명한 상을 제시해 준다. 대부분이 얼마 되지 않은 열심 있는 교인이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위의 두 종류의 극단은 일종의 교회 내에서 집단적 성향을 띤 병리적인 현상들이다.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보편적 결여들이 치유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증세라는 말이다. 목사는 교회 내에서 율법적인 성향들과 신비적 극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목회는 불건전한 사상과 사조에 대한 방어 의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25)</sup>

교회 안에서 이런 양극단이 나오지 않도록 목사는 그 양들을 치료해야 한다. 부지런히 살피면서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치료를 실시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유도해야 한다.

### ③인간의 보편적 결여

버논 그라운드(Vernon Grounds)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보다 더 비극적으로 진실된 말은 없다. 사람들은 예외없이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예전의 동편에 살고 있는 죄악된 인생들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인생은 타락했을 뿐 아니라 오류와 고통, 실패, 비극 그리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외로움과 질병, 증오, 우울증, 권태감, 불안, 슬픔, 열등감 그리고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은 격려되고 고무되며 새롭게 된다. 그러나 만약 강단에서 원리만을 전달하고 그 후에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외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되는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다시금 도약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상담설교이다. 상담설교는 모든 청중이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청중이 내재적인 한계 상황을 고통스러워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 3) 상담설교의 성경적 배경

상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 할 수 없지만 오래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사실 상담은 천지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또한 상담설교의 한 원초적 형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 가셨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결과로 위기와 문제에 부딪혔다. 그들의 대처방법은 무화과나무 앞으로 엮은 치마로 수치를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다.

25)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목자의 사명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파괴한 관계성을 이해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관계성을 원한다. 죄가 파괴한 것은 단순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타락이 낳은 결과가 계속적인 관계의 단절,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아담은 하와와 죄에 대한 핑계로 단절된다. 하와가 처음 아담에게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던 것과 정반대의 진술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창3:12)라고 말함으로 이미 하와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외부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족 관계로 확산되고(창4:9) 라멕에 이르러서는 감정적인 약자의 살인으로 발전된다(23-24).

이렇듯 죄의 결과가 인간 실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으로 표출된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뻔뻔스러움(창4:9)이나 자신의 살인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라멕의 불경스러움(창4:24)<sup>26)</sup>은 현대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과 상통한다. 따라서 죄를 행동의 차원에서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죄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목표와 감정까지도 오염시킬 것이다. 단순한 행위를 비꾼다고 해서 존재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확산될 것임을 아셨다. 그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신 것이다. 이것이 목회상담의 한 특징이다.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오기 전에 상담자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목회현장의 상담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장소를 묻는 물음어 아니다. 그것은 아담이 떨어진 연약함에 대한 존재적 질문이었다. 문제 상황에 처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의 연약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의 첫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이었다. 상담의 내용은 창세기 3장의 저주이다.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설교

26)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일지라도 무분별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을 라멕이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철저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겠노라고 노래하는 것이다.

와 맥을 같이 한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들의 처한 형편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 3장 14절-15절에 뱀에게 먼저 저주를 선포하신다. 이것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복음으로 연결된다.<sup>27)</sup>

주님은 이 땅에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창세기의 불안과 긴장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주님 자신이 상담설교가 이셨다. 그리고 이 효과는 이미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다. 20절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었다.<sup>28)</sup>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연약한 그들의 당면 과제까지 해결해 주신다. 이는 상담설교가 지향해야 할 또 다른 목표 하나를 제시한다. 설교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시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29)</sup>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히4:15)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체휼이란 행동으로 나타난 이해심 혹은 동정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그 외의 여러 달렘마에 빠진 자들을 만나시고 해결해 주셨다.<sup>30)</sup>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오는 회중들의 일상의

27) 창3:15는 전통적으로 '원시복음'이라 불리운다.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죄의 원인을 사단에게 두심으로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이 원시복음의 구조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으로 묘사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그 은덕이 연약한 인생에게 전달되게 된다. 한정건, 『오정석의 강의를』, 고신대학원 2학년 1학기 교재.

28) 이것은 하나님의 상담설교의 결과가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을 치해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즉시로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상담설교를 통해 그들은 장래의 소망(여자의 후손)가운데 회복되었다. 아담은 방금 죽음의 열매를 먹은 하와를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29)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설교'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본질 사이에는 괴리가 없다. 하나님의 진능하심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 남김없이 보여 주셨다. 설교를 지속되는 계시의 차원에서 보는 것은 보편적이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교이시다. 이시야는 예수님을 "Wonder of Counselor"(사9:6)로 묘사하고 있다. 한정건, 선지석의 교재.

30) 요3:1-15 ; 7:50, 51 ; 19:39-41에는 니고데모를, 요4:42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간음중에 잡혀온 여자의 위기를 8:1-11에 해결해 주셨고, 눅19:1-10에 세리장이면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셨다. 주님은 또한 시험에 빠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의 회중들의 처한 영적이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며 육신적인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sup>31)</sup>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셨다.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그 필요들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sup>32)</sup>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훌륭한 상담설교의 예가 된다. 여기서 주님은 대인관계, 부부관계, 언어생활, 의식주생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셨다. 특히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의 상담설교의 동기를 보여준다. 주님은 무리(정중)의 현실을 보시고 (파악) 불쌍히 여기사(Empathy)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즉 청중의 필요에 대해 주님이 취하신 태도는 오늘날의 상담설교가 들이 그들의 설교를 작성하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신약의 서신서 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상담설교집이다. 각 교회의 형편과 딜레마에 대해 신학적이고도 실제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로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편지들이 회중에게 읽혀질 때 그것은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상담설교가 되었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상처들을 해결해주고 극복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다. 구약의 선지서 역시 이런 측면에서 상담설교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상담설교의 형태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야말로 상담설교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상담설교는 분명히 설교이다. 모든 설교가 상담설교의 형태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 3. 상담설교가

상담설교가의 자기인식, 상담설교의 준비, 교회 안에서의 기능 등 실제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서서 회복시키셨다(눅22:31-34, 45, 46, 54-62; 요21:1-23). 던컨 부케넌, 『예수의 상담과 설교』, (아카페출판사, 1987), 제 10 장.

31)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장 정통한 뒷받침이 된다(빌2:5-8).

32) 심방(막1:29-31; 눅8:51-58; 10:38-42; 19:1-10), 친교(마9:9-13; 눅14:1-24), 논쟁(마12:1-22; 눅20:27-40), 책망(마11:20-30; 눅11:37-52), 권면(눅12:1-59), 가르침(눅15:1-17:10; 20:1-26), 지적(마4:23-25; 막5:1-43...)이 있으며 본격적인 설교의 형태도 있다(마5:1-7:27; 13:3-52; 21:23-25; 46:10; 13:12-16:16). 김판동,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p. 41.

#### 1)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기독교 상담자 혹은 목회상담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게리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상담자를 정의하고 있다. “헌신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sup>33)</sup>

어떤 경우에도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이는 설교라는 사역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설교자는 강연자가 아니며 성우도 아니다.<sup>34)</sup> 그의 사역은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명이 전제가 된다. 상담설교 역시 설교자가 하는 것이며<sup>35)</sup> 당연히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다. 상담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그를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sup>36)</sup> 이것은 설교자들의 공동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설교자 상담설교를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2) 말씀의 앞선 청취자요 실행자

설교자의 직분이 그의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 역시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어떤 형태로든 설교하려 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내가 기록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가 이 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은 것을 알리라”고 했다.

33) 게리 콜린스,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생명의 말씀사, 1996), p. 38.

34) 자기 사상의 전파자가 아니며 또한 들음직하게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35)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설교자는 상담설교자이다.

36) 존 스토트는 설교자를 ‘청지기’로 강조하면서 재료를 공급받은 일군으로 묘사한다. “...설교자의 임무는 그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설교자는 씨뿌리는 자이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눅8:11). 설교자는 반포자이다.” 존 스토트, 『설교자상』, (개혁주의 신학회, 1994), p. 24. 한편 티모시 켈러는 설교자를 ‘언약의 증인’으로 묘사한다. “...언약의 증인들은 그 언약의 유효성을 증거하고 장차 그 언약이 왜곡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 불가결한 존재였다.” 티모시 켈러, 『개혁주의 설교학』, (나침반, 1993), p. 37.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자의 정체성을 설교라는 사역에 전제되는 소명의 특수한 권위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로 결심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는다.” D.M.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9), 제 6 장.



“상담설교자는 청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시에 자신도 회중의 일부가 되어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sup>37)</sup> 그러므로 상담설교자의 기본덕목은 경건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경건은 모든 종교의 원천이다.<sup>38)</sup> 설교자는 인위적인 권위나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경을 통하여 설교해야 한다.<sup>39)</sup> 성령은 설교자에게 영적 경건함을 주심으로 역사하신다. 설교자는 의식적으로 늘 하나님의 존전에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 공회앞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였다. 설교자는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지혜를 먼저 체험함으로 얻어진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상담설교 역시 설교자가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설교의 대상인 회중에는 설교자 자신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설교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이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상담설교의 주체가 되시므로 설교자는 자기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청중과 함께 들어야 한다. 특히 그는 청중들 앞서 들어야 한다.<sup>40)</sup>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설교는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진리”라는 필립스 부룩스의 말은 설교자의 경건에 삶을 첨가시킨다. 설교자가 수행하는 강단의 증거는 한편으로 “개인의 직접적 체험의 권위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결같은 생활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sup>41)</sup> 이런 차원에서 상담설교자 역시 그 설교를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37)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46. 한진환 교수 역시 설교자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영광과 경외심, 열정(Pathos), 인격적 신실함과 함께 이 점을 지적했다. “설교자는 평소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설교를 위해 비로소 성경을 펴는 것은 운전치 못하다.” 한진환, ‘설교학 강의노트(96년 2학년 1학기 강의안)’. 이 점에서 설교는 강의와 다르다. 자료가 준비되었다고 다룬 것이 아니다.

38) 유헌무 교수가 칼빈의 글을 해석하여 인용한 것을 재 인용. 유헌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31.

39) 티모시 켈러, 『개혁주의 설교학』, (나침반, 1993), p. 155.

40)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스7:10)

41) 존 스토트, 『설교자상』,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p. 76. 그는 여기서 설교자를 ‘증인’이라는 세 번째 구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설교자를 ‘청지기’, ‘반포자’, ‘증인’, ‘아버지’, ‘종’이라는 다섯 가지 스펙트럼으로 묘사하고 있다.

### 3) 말씀에 능한 세심한 관찰자

우선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해야 한다.<sup>42)</sup> 상담의 기묘(Wonder of Counselor)<sup>43)</sup>라 불리셨던 주님은 말씀에 능하셨다. 주님은 자신의 시험의 상황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본을 보여 주셨다(마4:1-1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대해서도 성경의 예증을 사용하셨다(마12:1-8; 15:1-20; 22:23-33).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정독하며 연구하고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청중과 함께 나누기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sup>44)</sup>

동시에 상담설교자는 회중의 삶의 현장을 심방하여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파악하여 기도와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sup>45)</sup> 회중의 삶의 현실에 적절하게 부응할 때 상담설교의 맺세지가 살아난다. 회중 속의 개개인이 그들의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갈등과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sup>46)</sup>

42) 티모시 켈러, 『개혁주의 설교학』, (나침반, 1993), pp. 31-34. 여기서 설교의 정의는 ‘성경 말씀을 주해하는 것’으로 내려져 있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드러냄’(phanerosis)이라고 후4:2; 행4:29,31; 빌1:14; 딤후4:2; 히13:7). 존 스토트, 『설교자상』,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p. 25.

43) 이사야 9장 5절의 예언된 한 아기의 첫 번째 이름에 대한 이 해석은 생소한 것이다. 그러나 Wonderful Counselor로 보기보다는 위의 해석이 더욱 문맥에 적합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9장 5절의 문맥이 이를 뒷받침한다. 네 가지 이름은 각각 두 개의 병렬어의 관계를 가지는데 첫 두 개의 병렬어 앞의 이름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오고 두 번째의 경우는 뒤의 것이 신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문맥의 핵심은 Counselor 보다는 앞의 것에 더욱 강조를 둔다. ②이런 관계는 히브리어 문법과도 관계가 있다. 이 이름의 원어 표현은 נִצְוִי נִצְוִי인데 נִצְוִי는 연계형으로 נִצְוִי는 독립형으로 각각 표시되고 있다. 히브리어는 연계형이 독립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독립형이 연계형을 꾸미면서 의미가 종속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본래 נִצְוִי의 어미함을 뒤의 독립형으로 수식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기의 이름은 נִצְוִי(Wonder)가 될 것이고 נִצְוִי는 형용사형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③נִצְוִי의 용례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큰 일, 비밀스럽고 기이한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삿13:18; 사28:29). 한 정건, 선지서의 강의안, 고려신학대학원 2학년 2학기 교제.

44)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아는 대로는 다 전해 주었다”(행20:27)고 주장했다. 설교자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마의 분량을 돌아가면서 즐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45)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존 스토트, 『설교자상』,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p. 29. “상담설교는 세계에서 준비하는 동시에 목회현장에서 다듬고 기도실에서 능력을 받는다.”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p. 47.

## 4) 협력자

상담설교자는 설교자다.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상담설교 역시 본격적인 상담이 아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좀 더 구체적인 상담효과(혹은 치유효과)의 창출을 위해 제반 전문가들과 협력을 가져야 한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전문 상담자나 의사, 교사, 사회사업가 등과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한다.<sup>47)</sup> 상담설교 만으로 회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중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명단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평소에 긴밀한 파트너 의식을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 4. 상담설교의 기능

## 1) 목회상담의 한계를 보충

오늘날 목회상담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장기치료에서 단기치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전문인력의 부족과 치료비의 증가에서 기인한 문제이지만 장기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장애나 정신병리를 뜻하지 않게 조장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된 경향이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과나 조직적인 생활패턴 등의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치료시간의 단축과 효과의 극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익명성(匿名性)을 요구한다. 자신의 숨겨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sup>48)</sup> 아쉬워서 문제를 털어놓고 해결되기까지는 좋는데 그 이후에 상담자는 두 가지의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 첫째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있다고 생각하는 내담자가 두려움을 갖고 대하는 것이다. 후시 자신의 일을 이야기 거

리나 예화로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염려이다. 그래서 괜히 피하게되고 심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한 후회를 하게 되므로 또 다른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담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기 쉽다. 즉 공격적으로 바뀌어 버린다. 결국 내담자가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목사를 내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실제로 상담에 있어서 익명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회현장에서는 예방상담(Preventive Counseling)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sup>49)</sup> 예측 가능한 장애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 면역체계를 길러주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이를 봉쇄함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아예 회복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독교상담이 가지는 성경해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상담자가 성경과 신학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전문가일 경우 이들이 적용하는 성경의 해석이 표면적이거나 오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신학에 대해서보다 심리학과나 심리학 이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일 학교 수준의 신학적 훈련에다 대학원 수준의 심리학 훈련을 “통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말이나 본문들을 아무리 많이 제시한다 해도 결국 심리학적 개념이나 문구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sup>50)</sup>

이와 같은 한계는 상담설교를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될 수 있다. 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담의 내용들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상담적 접근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그럼으로 말씀속에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성경해석의 토대를 마련해주게 된다. 이 치유의 방법은 복음이 된다. 상담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예방하며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sup>51)</sup>과 대면하도록 해준다.

46) 일상적인 교제와 모임, 봉사, 성경공부, 세미나, 기도회, 개인상담, 그룹상담 등을 통해서 회중의 관심사와 필요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47) 실제로 상담설교의 청중 중에는 순수한 영적인 문제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영적 침체의 결과를 초래한 것들이 많이 있다. 가난, 질병, 신체적 구속, 억압 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법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48) 이런 성향은 전화상담의 증가나 서신형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실시하는 상담은 어쨌든 부담스럽다.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994년 11월호.

49) 이것은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주로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개적인 강좌 등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메스컴에서도 주부 시간대 방송편성의 경우 적지않게 보여진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토크쇼’ 프로그램 등이 있다.

50) 케리 콜린스,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생명의 말씀사, 1996), p. 33.

51) 상담설교에서 제시되는 복음은 도마가 의심의 장애요소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손으로 확인한 뒤에 고백했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상담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도우게 된다. 목회상담은 내담자가 어떤 면에서든지 상담자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상담설교는 상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시한다. 그리고 신앙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자존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청중의 신앙인격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꾀할 수 있다.

## 2)실제적인 영혼치료의 기능

앞에서부터 상담과 설교를 양립시키지 않고 통합하되 설교의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글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이 상담설교의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담설교는 실제적이고 효력 있는 치료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상담설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어 그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죄책감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에게 죄책감의 의미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그의 상처를 단순히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설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죄책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설교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주 하나님이 그의 죄책감을 씻으시고 그의 상처를 고치시게 해야 한다.

위로의 주님, 용서의 주님, 치유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상담설교의 한 기능은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눌린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격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그 독특성이 있다. 즉 목회적인 관심에서 사람들을 보며, 위로와 권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데 독특성이 있다.

이 외에도 상담설교를 통하여 교육, 무장, 지원, 격려, 화해, 전도 등의 기능을 설명하기도 한다.<sup>52)</sup>

## 5.상담설교의 준비와 실제

“상담설교는 서재에서 준비하는 동시에 목회현장에서 다듬고 기도실에서 능력을 받는다.”<sup>53)</sup> 이 말은 다른 설교와 변별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모든 설교가 이와 같

52)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pp. 54-55.

은 중심에서 준비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설교는 어떤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설교라고 볼 수 있다.

### 1)상담설교의 주제 선정

상담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 동기들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가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정하게 될 수 있다. 때로는 심방을 하는 중에 교인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 내담자의 형편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주제를 선정하는 동기는 다양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이런 동기들에 다 반응해야 하는가? 설교자가 이런 모든 상황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를 다 상담설교로 준비할 수는 없다. 상담설교만이 설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것은 선택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원리는 없는가?

물론 간단하게 대답하면 '설교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 전혀 감동이 없고 또한 실제로 답해줄 수도 없는 부분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다루거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성경말씀이 해답을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상담설교는 성경본문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말씀이 청중의 필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개개인에게 맡겨두신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상담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 성경 본문이 해답을 직접 제시하는 주제를 우선 택하는 것이 청중으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하여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청중의 필요에 대해 객관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상담설교의 주제는 목회자가 보는 필요와 청중 자신이 느끼는 필요 사이에 객관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중의 현실적 필

53)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pp. 47.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목회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판단이나 계획을 무시한 채 청중들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온전하지 않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와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한 복잡하게 얽힌 환경에서 다양한 직업과 조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양한 성장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며 각기 다양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가능성 있는 주제들이 동시에 떠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를 설교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처지에서 선택의 필요가 주어진다. 이때 설교자는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과 방향을 감안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sup>54)</sup>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로,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몇 가지가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교자가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과 함께 청중이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이에 힘을 입어 다음의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시키는 것이 좋다. 목사 자신이 마음에 붙어 붙은 주제를 접어두고 다른 주제를 굳이 먼저 선택할 필요가 없다. 힘든 설교를 가까스로 준비하다가 지치고 확신이 없이 설교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섯째로, 특정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교인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연상하게 할만큼 구체적이거나 최근의 사건들을 좋지 않다. 설교자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상담설교의 전제가 되는 설교자는 목사이자. 그러므로 이 상담설교 역시 그의 목회사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목사의 심정으로 양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양의 상처를 견드리거나 재발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속에 든 칼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제법 지난 상처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모든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알아야 상담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형편과 눈치를 보다가 주눅들 필요도 없다. 그러나 뻔히 알만한 특정한 사람이 연상되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이 된다.

여섯째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주제들을 회중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 다음 설교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해준다. 아무리 흥미 있고 신선한 주제들이라 할지라도 변화 없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치우쳐 단조로움을 주게되어 쉽게 지치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중 개개인의 삶의 현상이 다양하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를 통해 기대하는 위로와 도움도 각각양색이다. 어느 한 설교가 모든 개인들을 다 만족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난에 관한 설교가 은혜롭다고 해서 고난에 관계된 것만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식상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주제는 관심과 흥미 유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청중들이 설교에 대해 기대를 갖고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일곱째는, 위에서 추구하는 다양성을 연관성 위에 배열하는 것이다. 실패, 고난, 서원, 용서, 회복 등의 주제가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면 설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고조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로, 상담설교는 다른 설교들과 균형 있게 배열 되어야 한다. 상담설교만이 현대의 문제나 성도들의 삶의 고난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결코 독단적인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의 독선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편중해서는 안된다. 청중들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노예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장과는 깊은 연관이 없는 교리적인 선명성이나 하나님의 거룩, 존귀와 영광 그 자체도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설교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설교가 연제나 성도들의 땅 위의 문제나 긴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원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설교자는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또 다른 노력을 남몰래 기울여야 한다. 설교자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설교 양식에 사활을 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신의 신학적 혹은 목회적 이상을 추구한다는 명목아래 어떤 특정한 형태로만 굳어져 버린 많은 설교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전도설교에만 매달리고 다른 사람은 소위 구속사적 설교라는 한 가지 형태만 인정한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성경공부 식으로 나열하고 한 편의 예화 모음집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다 설교자가 자신의 취향에만 몰두하여 편견에 사로잡힌 경우이다. 설교를 목양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설교자의 또 다른 면을 다양한 봉사를 통해 보여주셨다. 주님의 설교와

54)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상담은 어떤 특정한 형태만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막연히 자신의 취향만을 따라가지도 않았다. 주님의 설교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배풀어졌으며 온전한 균형 위에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과 고통 하는 자들과 주린 자들과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갖가지 궁핍증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 시고, 만나시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타난다. 이런 사역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교제하시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장면들과 아름답게 얽혀있다.” 이것이 주님의 설교와 사역이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만약 어느 한 부분만을 편향하면 주님의 조화로운 사역을 파편화시켜 이해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물론 어느 설교자도 예수님 만큼 다양하고 조화로운 사역을 감당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설교자가 자기의 취향에 의존하여 편협한 설교관을 가지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설교자가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게으른 것을 정당화 해주지 않는다.

## 2) 성경해석

성경해석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은 주석적으로 읽혀져야 하며 신학적, 역사적, 문학적, 문맥적인 파악의 기초를 통과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은 곧 계시(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이다. 각종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은 이 해석의 과정에서 빛나간 것들이 많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소한 네 가지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세계관 적인 차이들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게리 콜린스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나는 기독교 상담자들이 쓴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성경 본문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성경 구절들만 따다가 성경저자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sup>55)</sup> 버나드 램은 이미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 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면 그 축복

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역에도 불구하고 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 상담자에게 성경적 상담을 온전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설교자가 상담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목회상담에 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담설교의 성경해석도 다양한 방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게리 콜린스의 3단계 성경해석을 간략히 소개할까 한다.<sup>56)</sup>

해석자는 매 순간마다 본문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대화로 해석을 진행한다. 묵상과 해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로, 해석자는 성경을 유심히 관찰한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누가 본문을 말하고 누구에게 하는가?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상황은 어떤가? 왜 그 본문이 기록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진술되고 있는가?

둘째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한다. 계속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도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의 내면에서 응답하시는 성령과의 대화라 할 것이다. 본문의 문학형태는 무엇인가? 그 구절의 배경은 어떤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 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살핀다. 본받을 점, 경계하고 있는 것,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 직면해야 할 도전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위와 같은 과정은 설교가 작성되기까지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실제로 해석의 과정은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하지만 성경해석의 기준은 이미 설교자로서 숙지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상담설교의 구성

상담설교는 설교의 본문과 그 해석에 의존하여 자유로운 제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설교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대지설교, 본문의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는 강해설교, 청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박진감있게 제시하는 문제해결설교도 가능하다.<sup>57)</sup>

55) 게리 콜린스,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생명의 말씀사, 1996), p. 69. 결국 게리 콜린스는 상담에 있어서 설교적 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확한 주석과 주해가 없는 성경의 임의적 인용은 결국 성경의 의도를 소홀히 하고 그 권위를 너무 쉽게 평가한 것이 된다.

56) 게리 콜린스,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생명의 말씀사, 1996), pp. 73-88.

57) “상담설교는 (1)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2)왜 여기에 이르렀는가? (3)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4)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것인가?하는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 말씀』, 1994년 11월호.

상담설교는 그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방식을 취한다. 상담설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효과이지 미적 여유가 아니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대로 배열을 시도한다. 서론, 본론, 결론 등의 배열이나 주제식 배열이나 논증도 나쁘지 않다. 다만 그 전체의 의미를 설교자가 이해하고 있다면 특별한 제약은 가할 필요는 없다.

#### 4) 상담설교의 실제

여기서는 상담설교의 실제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할까 한다. '百聞이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다. 우선 설교의 동기와 작성과정, 구성, 목적, 결과 등을 먼저 밝혀볼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수요예배시간에 설교된 내용이다.

##### ① 설교의 동기

몇 가지의 사건이 겹쳐서 설교의 동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설교자에게 동기를 유발시킨 계기는 상담을 통해서였다.

O 양은 고등학생이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듯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꺼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기를 주저하고 특정한 사람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주일 예배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직분자였고 어머니 역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였다. 가끔적이면 유치부 때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새벽기도부터 중일을 교회에서 보내다시피 하는 열심파였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자라왔는데 갑자기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사람을 피하고 예배를 꺼리고 달아나기가 일쑤였다. 몇 번이나 상담을 했었고 기도를 통해 해결된 것처럼 느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더 깊은 체념과 자기부정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의 큰 딜렘마는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의 부정적인 징후들이 엄청난 무게로 그녀를 압박해 오는 것이었다. 정직하지 못함, 음란한 생각, 학업의 어려움 등이 고통스러웠다. 특히 자신의 속에서 생각으로 일어나는 성적인 이미지들이 더욱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고 말았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다. 더욱 괴로운 것은 남들이 자신의 이런 내면적인 추함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남

들을 피하게 된다. 권위적인 부모님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더욱 야단을 치거나 강요에 의해 딸을 교회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J 집사는 요즘 무척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요동 때문이었다.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늘 자신을 괴롭힌다. 다시는 남편을 통해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점점 마음의 문을 좁게 만든다. 직분을 받았으면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과거의 상처가 더욱 현실로 느껴지고 만다.

헌없이 착하고 좋지만 한 남편이지만 신앙은 정말 불만스럽다. 빌고 또 빌고 다 짐하고 또 해도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는 개선될 줄 모른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의도적인 만남은 아니었다. 그런데 만나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던 것이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 ② 설교의 준비와 실행과 결과

우선은 이런 경우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을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충분히 이해는 가면서도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익명성과 함께 최대한의 효과를 다 만족시키는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했다.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등의 본문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본문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약 4 개월을 말없이 관찰하고 기억나는 데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본문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외로 수업시간을 통해 빛을 주셨다. '교회 내 갈등 관리'라는 수업시간에 요한복음 4 장을 잠시 다루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본문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 요한복음은 대학부의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부분이었다. 4 장의 '수가성의 여인'과 8 장의 '간음한 여인' 등 두 본문이 내심 정해졌다. 그리고는 필자에게 배정된 설교순서를 살폈다. 마침 한 주 간격으로 주일 저녁과 수요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한 번으로 마치려던 생각은 이내 2 회 연속으로 다루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설교는 '수가성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좀 더 넓은 원을 그리며 주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물론 특정인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었기에 보편적인 차원의 문제를 그 기조로 접근했다. 특히 수가성 여인의 감춰어진 처지와 내면적 갈등, 그리고 수치 등의 긴장을 겸손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

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설교는 명백한 범죄의 현장과 그로 인한 심판 그 고소자인 사단의 무리, 그럼에도 구출되는 죄인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절대적인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기쁨을 강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두 편의 설교를 강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체와 대지설교의 절충으로 시도해 보았다. 지시적이거나 분석하는 형식보다는 내러티브가 내면적 대화의 진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전달과 기억에서는 비록 걸음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대지를 염두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3인칭 시점에서 상황과 내면을 직, 간접적으로 묘사했다. 결코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저히 강단에 올릴 수 없을 것 같아 자신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러나 설교의 결과는 잔잔한 혁명과도 같았다. 수많은 감추어 졌던 새로운 상담의 경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간음이나 성적인 문제들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려움과 자신의 이중적인 기준을 탄식하는 대학생, 내용은 몰라도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청년회원, 가족의 동거와 구원 문제로 고민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이어지는 기도의 부탁들... 특히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두 번째의 동기가 되었던 분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다. 단지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아무 말 없이 전달해 준 것 외에는...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단지 설교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첫 번의 동기가 되었던 경우는 여전히 미결이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그 효과도 전혀 알 수 없었다.

③설교의 개요

간략하게나마 두 설교의 개요와 함께 두 번째 설교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나름대로 정리했던 위의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설교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시도했던 기록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 되리라 생각한다.

A 수가성의 그리스도(요4:1-42)

설교의 주제 : 예수님은 죄중에 있는 인생의 회복자이시다.

설교의 목적 : 죄를 은폐함으로 내면에 쌓인 수치를 내어놓게 하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가운데 새로운 태도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게 한다.

설교의 구성

대 지 1. 예수님은 겸손한 회복자이시다.

-예수님은 땀별에 물 길러 온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목마른 나그네가 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양을 입으셨다.

(성육신, 십자가)

2.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회복자이시다.

-예수님의 생수는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의 생수는 회개함으로 마시게 된다.

3. 예수님은 수치가 바뀌어 자량이 되게하시는 회복자이시다.

-여자의 지나간 수치는 회복의 가장 큰 증거이다.

-예수님은 회복된 자의 자랑거리가 되신다.

B. 죄인의 구주 예수님(요8:1-11)

설교의 주제 :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의 구세주이시다.

설교의 목적 : 죄의 결과와 심판의 무서움을 직시하게 하여 경건을

향하게 하고 진정하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고 죽을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죄악과 싸우는 새로운 삶을 촉구한다.

설교의 구성

1. 죄는 죄인을 구속한다.

-죄는 수치를 드러낸다.

-죄는 고소자를 의기양양하게 한다.

-죄는 그리스도를 괴롭힌다.

2.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악한 고소자를 심판하신다.(형제를 판단할 수 없다).

-죄를 옹호하지는 않으신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실 뿐이다.

3. 용서받은 죄인은 죄를 벗어나야 한다.

## ■. 결 론

상담설교는 설교이다. 상담의 효과를 목적으로 설교한다. 교회 안의 치유가 필요한 인격들의 아픔을 감싸준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위로를 통해 표면적인 위로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두운 요소들에 대하여 빛이신 주님을 제시하고 그에게 나아가게 함으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 상담설교야말로 교회의 영적 유익과 현실적 치료를 목표로 한 목회적 관심의 표현이요 주님의 양무리로서의 성도들에 대한 책임수행의 한 방편이다.

상담설교는 현대인의 걸잡을 수 없는 복잡함과 혼란스러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불확실성 속에서 갈등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위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가치와 사람과 사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담설교는 목회상담이 가지는 지엽성과 한계를 보완해 준다. 목회상담은 교회 안의 특별한 계층에 대하여 비교적 장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상담설교는 설교의 형태로 전달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선포하므로 상담가의 오랜 준비와 개인적 권위를 얻는 작업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나 주님 역시 치유를 위한 상담설교가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상담설교가인 목사는 이런 주님의 본을 그의 교회에 나타내는 이 시대의

목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필요하며 초보적인 첫 걸음마였던 본인의 것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모든 설교가 이런 목표를 지향하진 않는다. 그러나 상담설교의 목표는 목회자의 섬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라면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현대는 극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의 회오리 속에 막연한 '오즈'에로의 환상을 강요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상과 환상을 혼돈하여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독교의 종말적 세계관을 무시하면서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끝없는 추락을 즐기는 듯하다.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 환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를 통한 진리의 초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상담설교를 단순한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서술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를 넘어선 현대의 파멸지향적 세계관을 향해 진리의 비수를 겨냥했어야 했다. 조출한 연구여서 그다지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에는 너무 죄송스런 마음이 가득하다. 왜 이리 소시민적 접근을 고집했을까? 이것 역시 '내 교회만' 하는 식의 새로운 이기주의는 아닐까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몇몇의 학우들과 '상담설교'에 관한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담과 설교의 영역을 상호 불가침의 암시적 협정속에서 대하는 듯하다.

아울러 그토록 설교의 고유의 위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솔직히 상담의 효과가 주는 매력 때문에 많은 부분이 모자람을 느낀다. 시대와 사회를 향한 좀 더 적극적인 선지자적 음성으로서의 상담설교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아울러 상담설교의 구체적 표현법 등에 대한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설교에 있어서 센서어필이나 청중분석, 실제적 내러티브의 기술 등에 대해 좀 더 나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믿는다.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김만풍, 『상담설교』, 크리스찬서적, 1995.  
 송길원, 『쉽표가 있는 삶』, 두란노, 1996.  
 유해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총회출판국(고신), 1997.

## 2. 번역서적

- Adams, Jay E., Pastoral Counseling, 정삼지 역, 『성공적인 목회상담』,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Baxter, Richard, The Reformed Pastor, 지상우 역, 『참된 목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Buchanan, Duncan, The Counseling of Jesus, 천장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 아카페, 1987.  
 Collins, Gary R., The Biblical Basis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생명의 말씀사, 1996.  
 Corey, Gerald,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기태 역, 『상담과 심리요법의 이론과 실제』, 성광문화사, 1987.  
 Crabb, Lawrence J., The Key to Caring, 오현미·이용복 역, 『격려를 통한 상담』, 나침반, 1996.  
 Johns, D.M. Loyd, Preaching &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Keller, Timothy., 이은재 역, 『개혁주의 설교학』, 나침반, 1993.  
 Robinson, Haddon J.,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강해설교』,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Stott, John R.W., The Preacher's Portrait, 문창수 역, 『설교자상』, 개혁주의 실행협회, 1994.

-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상상이 있는 설교』, 요단출판사, 1997.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이미지가 있는 설교』, 요단출판사, 1997.  
 Stott, John R.W.,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도서출판 품만, 1989.  
 Egan, Gerard., The Skilled Helper, 오성춘 역, 『상담의 실제』,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Greidanus, Sidey., Sola Scriptura, 권수경 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학생신앙운동, 1995.

## 3. 정기간행물(논문)

- 『상담과 선교』, 제 10 호, 1995년(겨울).  
 -김남식,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박형렬, '총체적 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정정숙, '치유상담에 대한 이해'  
 -존 워버,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1994년 11월호.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심상권, '설교와 목회상담'  
 -오성춘, '치유와 상담설교'  
 -이재훈, '상담설교의 실제'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웨인 오츠, '설교에 영감을 주는 목회상담'  
 -존 맥아더, '성경적 상담과 영적 자원의 충족성'  
 『한국 교회 2세기의 과제, 예배·설교·선교』, 제 6 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